

코스피	2548.26	코스닥	906.36
	(-15.08)		(-11.59)
금리	3.847	환율	1335.40
	(+0.082)		(+4.90)

르노만의 혁신 디자인  
광주비엔날레서 공개  
04



## m-커버스토리

# 특혜 의혹 재점화... 압색 등 증권가 몸살

〈압수수색〉

### 끝나지 않은 '라임 악몽'

금감원 라임사태 추가 조사결과 특혜성 환매 등 추가 의혹 발견  
檢, 미래에셋·NH·유안타 압색  
일부업체, 피해자 환매 등 진화  
영업 위축, 신뢰 추락 등 불가피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등 3대 부실 사모펀드에 대한 금감원 조사와 검찰 수사로 인해 증권업계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일부 증권사들이 뒤늦게 피해자 환매에 나서는 등 사태 해결에 손쓰고 있지만 이번 사태로 인해 영업 위축, 투자자 신뢰 추락

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3면〉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채권랩·신탁 돌려막기 운용, 운용업계의 임직원 사익 추구 등에 대해 조사에 나섰던 금감원이 라임펀드 사태를 다시 들여다보면서 증권업계가 몸살을 앓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24일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자산운용에 대한 추가 조사 결과, 특혜성 환매 의혹 대상에 국회의원이 포함돼 있다고 발표했다. 이에 의혹 대상자로 떠오른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래에셋증권에서 환매 권유를 받았다고 밝히면서 판매사인 증권사들이 수사 대

상에 포함됐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유안타증권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라임 펀드가 대규모 환매 중단 직전인 2019년 8월부터 9월 사이 유력 인사나 특정 기업에 자금을 돌려주는 특혜 의혹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이들 증권사는 각각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농협중앙회, 고려야연 등에 라임 펀드를 판매했다.

펀드 돌려막기 의혹이 있는 조기 환매 펀드는 총 4개인 만큼, 추가 판매사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 금감원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면 대상을 정해 검사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의 재조사로 라임사태가 수면위로 떠오르자 판매사로 이름을 올린 일부 증권사는 서둘러 진화에 나서고 있다.

신한투자증권은 지난 29일 이사회를 열고 환매가 중단된 젠투와 라임펀드 고객 보호를 위해 사적 화해 방식의 보상을 결정했다. 사적 화해 대상 규모는 젠투펀드 4180억원과 라임펀드 1440억원이다.

사적 화해 절차는 다음 달부터 시작될 예정으로 사적 화해를 통한 지급 비율은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배상 비율 산정 기준을 준용할 계획이다.

〈3면에 계속〉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허인 KB금융 부회장

## KB금융 차기 회장 8일 최종후보 결정 허인 부회장 '유력'

KB금융그룹을 이끌어 갈 차기 회장에 허인 KB금융 부회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후보는 8일 결정된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금융 회장 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는 오는 8일 차기 회장 후보로 선정된 3명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진행한 뒤 투표를 거쳐 최종 후보자 1명을 확정할 예정이다.

앞서 회추위는 지난달 29일 인터뷰를 통해 외부인사인 김병호 베트남 HD은행 회장과 내부인사인 양종희 KB금융 부회장, 허인 KB금융 부회장 등 3명을 차기회장 후보로 압축했다. 모두 1961년생이다.

김 회장은 서울대 영문학과를 졸업하고, 1987년 하나은행의 전신인 한국투자금융에 입사했다. 2015년 2월부터 8월까지 하나은행장을 맡은 그는 2018년 3월까지 하나금융 부회장을 지냈다. 지난해부터 베트남 HD은행 회장을 맡고 있다.

양 부회장은 서울대 국사학과를 졸업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LIG손해보험 대표이사를 맡은 그는 2020년 KB금융 부회장직에 가장 먼저 올랐다. 그룹내 재무통으로 꼽힌다.

허 부회장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2017년부터 4년간 KB국민은행장으로 지낸 그는 2021년 KB금융 부회장으로 승진했다. 허 부회장은 국민은행장으로 재직 당시 2년 연속 리딩뱅크 자리를 지키는 등 안정적인 이익증가를 이뤄내 그룹내 영업통으로 불린다.

현재 금융권에서는 허 부회장이 차기 회장으로 가장 유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그룹에서 은행은 가장 규모가 큰 핵심계열사인 만큼 은행장 경력은 회장의 필요조건으로 꼽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서울대 법대출신인 점도 힘을 신는다. 윤 대통령은 서울대 법대 79학번으로 허 부회장이 한 학번 아래다.

KB금융은 오는 8일 최종후보자를 선정 후 회추위와 이사회 추천절차를 거쳐 11월 20일 주주총회를 통해 회장으로 선임할 예정이다. /나유리 기자 yul115@



### 일본, 달 착륙 로켓 발사 성공

7일 일본 남부 가고시마현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무인 탐사선 '슬림'과 천문위성 '쿠리즈'를 탑재한 H2A 47호 로켓이 발사되고 있다. NHK는 "H2A 로켓 47호가 오전 9시30분께 '슬림'을 궤도에 투입해 발사에 성공했다"라고 보도했다. 슬림이 달 착륙에 성공하면 일본은 세계 5번째로 달에 착륙한 국가가 된다. AP/뉴시스

## 온난화 주범 '냉매'... '친환경 전환' 정책적 유인 필요

### '콜드체인' 급성장에 냉매수요 ↑ 오존층 파괴로 국제사회 규제나서 韓, 내년부터 HFC 계열 감축 추진

'콜드체인' 산업의 뚜렷한 성장세가 나타나면서 냉장·냉동의 필수 요소인 냉매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를 앞당기는 냉매에 대한 글로벌 규제가 강화되면서 구세대 냉매 감축과 친환경 냉매로의 전환에 대한 국회 입법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관련기사 4면〉

의 운송 전반을 다루는 산업이다. 공급-수송-보관-유통-도·소매에 이르는 전 과정에 냉장이나 냉동 기술이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온도를 낮추는 물질인 '냉매'도 전 과정에 활용된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세계 콜드체인 시장은 2020년 1972억4000만달러(263조1970억원)에서 연평균 성장률 16.73%로 증가해 2024년엔 4275억3000만달러(570조496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전세계 냉매 시장도 2022년 62억달러(8조2652억원)에서 연평균 6.2% 성

장해 2029년에는 94억5000만달러(12조 5977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관련 산업이 커지면서 냉매에 대한 수요도 급증하고 있으나, 오존층 파괴와 지구온난화 심화의 주범으로 지목돼 국제사회의 규제의 대상이 됐다.

1세대 냉매인 CFC(염화불화탄소) 계열, HCFC(수소염화불화탄소) 계열은 오존층 파괴에 영향이 커 1989년 몬트리올 의정서(오존층 파괴물질 규제에 관한 국제협약)에서 생산을 중단하거나 감축했다.

한국이 콜드체인 산업 전반에 쓰는 HFC(수소불화탄소) 계열 냉매는 오존층 파괴 영향은 없었으나, 지구온난화 지수가 높아 문제다.

몬트리올의정서 총회는 지난 2016년 몬트리올 의정서 총회에서 HFC 감축과 대체 냉매로의 전환을 위해 '키갈리 개정서'를 채택했다.

한국은 당장 내년부터 HFC 계열 감축에 들어가 2029년에는 10% 감축, 2035년 30%, 2040년 50%, 2045년 목표인 80%를 달성해야 한다. 〈2면에 계속〉

/박태홍 기자 pth7285@

## 뉴스터뷰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 "은폐하면 정권 몰락" 민주당, 채상병 사건 특검법 발의 /사진 뉴시스
- ▲ 이군용 인사청문회 19~20일... 이경춘 전 회생법원장 증인 채택

- ▲ '대장동 허위 인터뷰'에 野 돌연 수세... 이재명 '계시물 비공개'
- ▲ 강서구청장 공천 결정한 與 '내홍'... 김진선 당협위원장 탈당할 듯



- ▲ 조국, 윤 직격 "용산 전체주의... 깨어보니 일제시대 느낌" /사진 뉴시스
- ▲ 평양서 다시 뭉치는 북·중·러... 북·중은 경제, 북·러는 군사에 초점